



## 韓國 地藏信仰의 특징

### - 彌勒信仰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Ksitigarbha

---

저자 (Authors)	조용헌 Cho, Yong heon
출처 (Source)	<a href="#">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a> , 2000.2, 103-121 (19 pages) <a href="#">Wonkwang Journal of Humanities 1</a> , 2000.2, 103-121 (1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a> Wonkwang Institute of Humanities, Wonkwang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81417">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81417</a>
APA Style	조용헌 (2000). 韓國 地藏信仰의 특징.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 103-12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13 11:4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韓國 地藏信仰의 특징

## -彌勒信仰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조 용 현(원광대학교 강사)

### 1.머 리 말

문화는 전파되면서 현지의 상황에 맞게 변형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종교도 또한 마찬가지이고, 불교도 역시 그러한 과정을 밟아 왔다. 불교가 처음 인도에서 발생하였지만 중국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상황에 맞게 변화되었고, 다시 한국에 전래되면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한국의 地藏信仰도 역시 유입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韓國的 變容’을 겪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적 변용이란 토착화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變容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 변용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부분은 인도 내지는 중국, 또는 일본의 지장신앙과 구별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 변용된 부분을 적출해 내기 위해서는 한.중.일 삼국의 地藏信仰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학계에서 지장신앙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 축적된 선행연구가 별로 없다.<sup>1)</sup> 선행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한국 지장신앙의 특징을 뽑아낸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과 원고분량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일단 계에 해당하는 초보적인 작업만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 2.眞表律師와 地藏信仰

한국지장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眞表律師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한국불교연구의 보감이라

---

1) 국내에서 지장신앙을 별도로 다룬 박사논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석사 논문은 몇 편이 있다. 석사 논문 중에서 비교적 볼만한 논문은, 양재오 「지장신앙의 이해」(서강대학교 대학원,1993)를 꼽을수 있다. 관음신앙의 연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장신앙에 대한 연구성과는 대단히 미약한 상황이다.

할 수 있는 『삼국유사』의 내용가운데 지장보살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대목은 바로 眞表律師와 관련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三國遺事索引』에서 ‘지장보살’항목이 어디에 나오는가를 찾아보면 ‘眞表傳簡’과 ‘關東楓岳鉢淵藪石記’에서 4회 등장한다.<sup>2)</sup> ‘眞表傳簡’과 ‘關東楓岳鉢淵藪石記’는 모두 眞表律師의 수도행적을 기록한 항목이다. 『삼국유사』의 수많은 항목 가운데서 흥미롭게도 眞表律師와 관련된 항목에서만 유일하게 ‘지장보살’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삼국유사』의 그 많은 불교관계 기사중 왜 지장보살이라는 용어만큼은 다른 기사에 비해 드물게 나타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드물게 나타나는 부분도 하필이면 왜 眞表律師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만 나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의문에 답 할 수 있는 가설 하나는 眞表律師와 지장신앙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진표와 지장신앙과의 밀접한 관련을 시사하는 주목할만한 단서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동안 眞表律師하면 미륵신앙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眞表는 구백제 지역에서 태어나 금산사 미륵전을 창건하면서 8세기 중반에 미륵신앙을 대중들에게 널리 홍보한 海東彌勒信仰의 敎祖라고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래서 진표하면 의례 미륵신앙 하고만 연결시켜 생각하였지, 지장신앙과의 관련성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감이 있다. 필자는 『삼국유사』에서 지장보살이라는 단어가 진표의 행적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유일하게 발견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진표와 지장신앙과의 관련성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적어도 『삼국유사』에서 나타나는 지장보살 기사는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진표와 지장신앙과의 관련을 추적하다보면 한국미륵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진표의 행적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의 미륵신앙 이면에는 지장신앙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삼국유사』 「眞表傳簡」에 나오는 그의 행적을 인용하여 보자.

“중 眞表는 完山州 萬頃縣 사람이다. 아버지는 眞乃末, 어머니는 吉寶娘이며, 성은 井씨이다. 나이 12세 때 금산사의 崇濟법사 강석 밑에 가서 중이 되어 배우기를 청했다. 그 스승이 일찍이 말했다. ‘나는 일찍이 당나라에 들어가 善道三藏에게 배운 후에 오대산에 들어가 문수보살의 현신에게서 오계를 받았다.’ 진표는 아뢰었다. ‘부지런히 수행하면 얼마나 되어 戒를 얻게 됩니까?’ 스승이 말했다. ‘정성만 지극하다면 1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진표는 스승의 말을 듣고 명산을 두루 다니다가

2) 『三國遺事索引』,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년, 116쪽.

仙溪山 不思議庵에 머물러서 三業을 닦아 亡身懺法으로 戒를 얻었다. 그는 처음에 7일 밤을 기약하여 五輪을 돌에 두들겨서 무릎과 팔뚝이 모두 부서지고 바위 낭떠러지에 피가 쏟아졌다. 그러나 아무런 부처의 감응이 없으므로 몸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다시 7일을 더 기약하여 14일이 되자 마침내 地藏菩薩을 뵈고 淨戒를 받았으니 바로 開元 28년 庚辰(740) 3월 15일 辰時요, 진표의 나이 23세였다. 그러나 그의 뜻이 慈氏에게 있으므로 감히 중지 하지 않고 靈山寺로 옮겨가서 또 처음과 같이 부지런하고 용감하게 수행했다. 과연 彌勒菩薩이 감응해 나타나 『占察經』 2권과 證果의 簡子 189개를 주면서 일렀다. ‘이 가운데서 제8간자는 새로 얻은 묘계를 비유한 것이요, 제9간자는 구족계를 얻은 것에 비유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沈香과 檀香나무로 만든 것으로 이것은 모두 번뇌에 비유한 것이다. 너는 이 것으로써 세상에 법을 전하여 남을 구제하는 뜻목을 삼으라’. 진표는 彌勒菩薩의 기별을 받자 金山寺에 와서 살며 해마다 壇席을 열어 法施를 널리 베풀었으니 그 壇席의 정결하고 엄한 것이 이 末世에는 보지 못하던 일이었다. 風教와 法化가 두루 미치자 여러곳을 다니다가 阿瑟羅州에 이르니 섬 사이의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고 물속으로 맞아들이므로 진표가 불법을 강의하니 물고기와 자라들은 戒를 받았다.”<sup>3)</sup>

진표의 행적을 기록한 「關東楓岳鉢淵藪石記」에도 역시 지장보살과 관련된 대목이 보인다.

“...律師는 金山藪 順濟法師에게 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됐다. 順濟가 「沙彌戒法」과 「傳教供養次第秘法」 1권과 「占察善惡業報經」 2권을 주며 말했다. ‘너는 이 戒法을 가지고 彌勒.地藏 두 보살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懺悔해서 친히 戒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하라’. 律師는 가르침을 받들고 작별하여 물러나와 두루 명산을 유람하니 나이 이미 27세가 되었다. 上元 元年 庚子(760)에 쌀 20斗를 쪼 말려 양식을 만들어 보안현에 가서 邊山에 있는 不思議房에 들어갔다. 쌀 五斛으로 하루의 양식을 삼았는데 그 가운데서 한 솥을 덜어 쥐를 길렀다. 울사는 彌勒像 앞에서 부지런히 戒法을 구했으나 3년이 되어도 授記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發憤하여 바위 아래 몸을 던지니 갑자기 靑衣童子가 손으로 받들어 돌 위에 올려 놓았다. 울사는 다시 志願을 내어 21일을 기약하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수도하여 돌로 몸을 두드리면서 懺悔하

3) 『三國遺事』, 李民樹 譯, 乙酉文化社, 1992, 「眞表傳簡」, 331-332쪽.

니, 3일만에 손과 팔뚝이 부러져 땅에 떨어진다. 7일이 되던 날 밤에 地藏菩薩이 손에 金杖을 흔들면서 와서 그를 도와주니 손과 팔뚝이 전과 같이 되었다. 보살이 그에게 가사와 바리때를 주니 울사는 그 靈應에 감동하여 더욱더 정진했다. 21일이 다 차니 곧 天眼을 얻어 兜率天衆들이 오는 모양을 볼 수 있었다. 이에 地藏菩薩과 彌勒菩薩이 앞에 나타나니 彌勒菩薩이 律師의 이마를 만지면서 말했다.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와 같이 戒를 구하여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서 참회하는구나' 지장이 「戒本」을 주고, 彌勒이 또 木簡子 두 개를 주었는데, 하나에는 아홉째 簡子, 또 하나에는 여덟째 簡子라고 써 있다.”<sup>4)</sup>

### 3.地藏菩薩과 彌勒菩薩의 연결

이 두가지의 기록에서 첫 번째로 주목되는 점은 地藏菩薩과 彌勒菩薩의 同伴登場이다. 地藏이면 地藏, 彌勒이면 彌勒만 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꼭 동반해서 등장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 순서도 있다. 地藏菩薩 나온 뒤에 彌勒菩薩 나온다. 지장이 먼저이고 미륵이 나중에이다. 진표 율사가 邊山の 不思議房에서 참회정진을 하였을 때 먼저 지장보살이 나타나 戒를 주거나 또는 金杖을 들고 나와 팔다리를 고쳐주었다는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진표는 지장보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꼭 미륵보살을 친견한다. 최종목표는 미륵보살에 있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은 진표 자신이 수도정진하는 최종목표가 미륵보살로부터 戒를 받는데 있었다면 곧바로 미륵보살에게 직행하지 왜 꼭 지장보살을 중간에 거쳐 가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교리적으로 살펴볼 때 지장보살의 역할은 無佛時代의 보살이다. 無佛時代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고 미래불인 미륵부처님이 도래하기까지의 중간시기이다. 즉 석가모니불은 이미 열반하셨고 미륵불은 아직 오지 않은 시기가 無佛時代이고, 이 어중간한 시기를 담당할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륵불이 올려면 그 전단계로 지장보살이 나타나야만 논리가 맞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륵불이 오기 전에 먼저 지장보살을 신앙하였고, 지장보살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미륵불이 온다는 신앙적 흐름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다. 眞表의 스승 順濟法師는 眞表에게 당부할 때 彌勒.地藏 두 보살에게 법을 구하도록 하라는 당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

4) 위의책, 336쪽.

장을 거쳐 미륵으로 가도록 하는 코스는 스승인 順濟法師의 당부이기도 하였다.<sup>5)</sup> 따라서 진표율사와 그의 스승인 順濟法師가 활동하던 당대에는 지장을 거쳐 미륵으로 가는 신앙코스, 즉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을 하나의 짝으로 여기는 신앙적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여겨지고, 그러한 흐름을 치열한 참회정진을 통해 세상에 확실하게 드러낸 인물이 바로 진표율사인 것이다. 확실하게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을 모두 친견하는 신앙적 체험으로 증명한 인물이 바로 진표율사라는 말이다. 진표율사가 不思議房에서 겪은 이러한 지장·미륵보살의 종교체험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친 파급효과는 엄청났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때 一然스님은 『삼국유사』에서 특별히 2항목이나 안배를 해서 진표의 이처럼 神異한 靈驗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sup>6)</sup>

지장과 미륵의 연결을 우리는 「占察善惡業報經」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전은 「地藏十輪經」, 「地藏菩薩本願經」과 함께 지장신앙의 三大經典에 속한다. 이 3대 경전중에서 진표율사가 소의경전처럼 애용한 경전은 알다시피 「점찰선악업보경」이다. 진표율사는 많은 대중을 교화할 때 占察法이라는 포교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점찰선악업보경」은 경전을 설하는 주체는 지장보살로 되어 있다. 「점찰선악업보경」이 3대 지장경전에 속하는 만큼 그 說主가 지장보살인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위의 「진표전간」에 보면 미륵보살이 「점찰경」(「점찰선악업보경」)2권을 진표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점찰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도구라 할 수 있는 簡子도 또한 미륵보살이 직접 주었다고 되어 있다. 「점찰경」도 彌勒菩薩이고, 簡子도 彌勒菩薩로부터 나왔다. 진표는 지장신앙의 핵심경전을 미륵보살로부터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은 지장보살로부터 받아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미륵보살로부터 받는다. 진표

5) 崇濟(順濟)는 입당하여 善道三藏에게 수업했다고 하는데, 善道는 곧 善導(613-681)로서 導綽(563-645) 문하에서 淨土를 공부하고 염불에 의한 정토신앙을 널리 펼쳤던 인물이다. 그래서 승제의 입당 수학 시기도 진표와의 관계로 보아 善導의 말년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당에서는 善導의 淨土敎와 함께 三階敎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이 두 종파는 禮懺에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세가 떨친 지역도 일치하여 서로 교류하였다고 하는데, 승제도 末法時代에 下品 중생의 地藏菩薩 禮懺를 내세우는 三階敎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玄奘 문하의 신라 출신 唯識學僧으로서 지장보살을 신앙하고 三階敎에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神昉과의 연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金南允, 『新羅法相宗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21쪽.

6) 조용현, 『眞表律師 彌勒思想의 특징』, 『馬韓 百濟文化와 彌勒思想』, 文山金三龍博士古稀記念論叢, 1994, 圓光大出版局, 818-820쪽.

의 이후 교화행적을 보면 미륵신앙을 홍보하는데 「점찰경」과 「점찰법」을 주요한 방편으로 삼는데서도 내용은 원래 지장신앙인데 마지막 귀결은 미륵신앙으로 끝내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지장보살과 미륵보살 또는 지장신앙과 미륵신앙의 결합은 진표율사에 의해서 공식화 되고, 이 결합의 형태가 이후로 한국불교의 특징적인 형태 가운데 하나로 전해졌다고 보여진다.

#### 4. 高敞 禪雲寺에 나타난 地藏信仰과 彌勒信仰의 결합

그렇다면 진표율사 이후로 지장신앙과 미륵신앙이 결합된 신앙형태의 실제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가?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그러한 결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全北 高敞지역에 소재한 禪雲寺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 선운사는 지장과 미륵이 결합된 흥미로운 사찰이다.

禪雲寺에는 현재 地藏道場으로 유명한 兜率庵이 있다. 선운사 兜率庵은 강원도 鐵原지역에 소재한 深源寺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兩大 地藏道場에 속한다. 지장도량하면 선운사 도솔암과 심원사를 꼽는 것이다. 도솔암이 지장도량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영가천도에 있다. 이곳에서 영가를 천도하면 아주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있어서 현재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불교신도들이 참배하는 도량이다. 선운사가 지장도량으로 언제부터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는지는 문헌이 없어서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조선조 초기 成宗때 王室의 제사와 함께 영가천도를 담당하는 顯刹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서,<sup>7)</sup> 조선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왕실의 제사를 지낼만큼 영가천도에 영험한 도량이고, 영가천도에 영험한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지장도량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솔암은 특히 오래된 영가, 묵은 영가를 천도하는데 있어서 영험하다고 전해진다.

흥미로운 부분은 兜率庵이라는 명칭 자체부터가 미륵보살과 관련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있다. 兜率은 미륵보살이 계시는 兜率天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현재 兜率庵의 현판은 「兜率天 內院宮」이라고 쓴 글씨가 걸려 있어서 이곳이 미륵보살의 주처임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사전을 찾아보면 도솔천은 수미산의 꼭대기서 12만 유순되는 곳에 있는 天界로서 칠보로 된 궁전이 있고, 한량없는 하늘사람들이 살고 있다. 여기에 內. 外의 2院이 있다. 外院은 天衆의 欲樂處이고, 內院은 彌勒菩薩의 정토를

7) 「兜率山禪雲寺創修勝蹟記」, 「大法堂重修記」 참조.

가리킨다.<sup>8)</sup> ‘도솔천 내원궁’은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이므로, 도솔암 법당에는 당연히 미륵이 모셔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두건을 쓴 모습의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다.<sup>9)</sup> 그리고 도솔암은 지장도량으로 명성이 높은 것이다.

또하나 도솔암이 미륵과의 관련을 나타내는 증거는 마애불이다. 도솔암의 한쪽 절벽에는 높이 7미터, 폭 3미터의 거대한 마애불이 절벽에 암각되어 있다. 이 마애불이 그 유명한 미륵불이다. 동학농민혁명의 기폭제가 된 사건은 바로 이 미륵불의 배꼽에 숨겨져 있는 비결을 꺼내는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도솔암 바위절벽의 미륵불의 배꼽에 숨겨져 있는 비결을 동학의 접주인 손화중이 꺼냈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학혁명에 가담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 배경에는 도솔암 미륵불의 배꼽에 있는 비결을 꺼내면, 그때부터 한양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한다는 민간신앙이 이 일대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sup>10)</sup> 아롱튼 도솔암 절벽의 마애불은 미륵불로 전해 내려왔고, 이 미륵불에 대한 민초들의 신앙이 그대로 동학으로 이월되었던 만큼, 도솔암의 미륵불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주변지역에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도솔암이니까 그 옆에는 미륵불이 새겨져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곳이 현재는 미륵도량이 아니라 지장도량으로 전해내려 오고 있는 것이다.

선운사가 전체적으로 미륵신앙과 관련되어 있음은 도솔암 올라오는 길목에 있는 6미터 길이의 ‘眞興窟’의 연기설화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兜率山禪雲寺創修勝蹟記」에 따르면 신라 진흥왕이 만년에 왕위를 내주고 나서 처음 머무른 곳이 이곳 선운산 경내라 하였다. 진흥왕이 바위틈이 갈라지며 彌勒三尊이 출현하는 꿈을 꾸고 나서 이에 감응되어 重愛寺를 세웠다는 내용이다.<sup>11)</sup> 重愛寺는 眞興窟을 말한다. 이 설화에 따르면 선운사 重愛寺(眞興窟)는 彌勒三尊의 출현이 계기가 되어서 세워졌다. 마치 백제 武王이 彌勒山 밑의 연못을 지나다가, 연못에서 彌勒三尊이 출현하여 彌勒寺를 창건하게 되었다는<sup>12)</sup> 미륵사 창건연기와 아주 흡사한 설화

8) 윤허용하, 『불교사전』, 173쪽.

9) 도솔암의 지장상은 얇은 테를 두른 머리 위쪽이 파르라니 깎여져 있어 僧形 지장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며 왼손에는 輪寶를 쥐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조 성종 연간에 幸造 대사가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완수, 『명찰순례』 2권, 대원사, 1995, 440쪽.

10) 宋基淑, 『한국설화에 나타난 민중혁명사상』, 『우리시대 민중운동의 과제』, 한길사, 1986, 224-225쪽.

11) 최완수, 앞의 책, 422쪽.

이다. 이 설화는 선운사가 원래 미륵도량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연기설화증의 하나인 것이다. 미륵도량인데 중간에 내려오다가 지장도량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또는 미륵과 지장신앙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해석하면 애초부터 지장과 미륵신앙이 공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애초부터 지장과 미륵신앙이 공존하다가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미륵신앙은 민중들에게 전수되고 지장신앙은 왕실에 포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여기에다 가능성을 높게 둔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부분은 선운사가 자리잡고 있는 지리적 여건에 있다. 선운사는 고창군에 있는데, 이곳은 진표율사가 지장·미륵으로부터 계를 받은 邊山의 不思議房과<sup>13)</sup>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대략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이다. 날씨 좋은 날이면 不思議房에서 禪雲山쪽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이다. 서로 가까운 위치인 것이다. 변산일대는 진표율사의 영향권이라고 보아도 좋다. 그래서 인근에는 미륵과 지장에 관련되는 암자와 절들이 많고 선운사 역시 그러한 영향권에 속하는 절이라고 여겨진다.<sup>14)</sup>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남지역의 3대 미륵도량은 益山の 彌勒寺, 金堤의 金山寺, 高敞의 禪雲寺

12) 『삼국유사』 「武王」條.

13) 不思議房의 정확한 위치는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다. 문헌에만 나와있지 실제 장소는 어디인가 확인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던 곳이다. 필자는 97년 『불교춘추』 최석환 부장과 함께 全北 邊山의 공군기지 밑에 있는, 摩天臺라고 불리는 절벽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不思議房의 위치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한바 있다. 不思議房의 크기는 가로 5미터 세로 3미터의 좁은 암반이다. 이곳은 절벽 중간에 마치 독수리집 같은 형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밧줄을 타고 10미터 정도 내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험난한 곳이다. 바위벽에는 진표율사 수행당시 쇠줄로 암자건물을 붙잡에 매어 두었던 쇠말뚝이 지금도 박혀 있어서 이곳이 그 유명한 不思議房 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조용현, 『나는 산으로 간다』, 푸른숲 출판사, 1999, 67쪽.

14) 禪雲寺 앞을 흐르는 仁川江 하류의 갯벌에는 예로부터 沈香이 많이 묻혀 있었다. 소위 말하는 埋香地였던 것이다. 참나무나 향나무를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의 갯벌에 묻어 놓고 오랜 시간이 흐르뒤에 꺼내면 이것이 沈香이 된다. 인천강 하류는 바로 그러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다. 埋香은 주로 麗末鮮初에 彌勒을 신앙하는 ‘龍華香徒’라고 불리는 신앙집단에 의해서 묻어졌기 때문에 이는 彌勒信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인 서정주가 바로 이근방 태생이고 그의 ‘질마재신화’라는 시에 침향이 떠오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埋香에 대한 연구는 이해준, 『조선시기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81-135쪽을 참고.

이다. 이 3군데 사찰의 위치를 서로 연결해 보면 삼각형 꼭지점의 형태를 이룬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진표율사의 悟道地인 不思議房이 있는 것이다. 선운사가 애초부터 지장과 미륵신앙이 공존하는 형태로 출발하였을 것이라는 근거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 지역의 신앙적 분위기로 보아서 진표율사가 제시한 신앙적 모델, 즉 지장과 미륵의 공존이라는 노선과 모종의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속시원히 밝혀줄 문헌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가지 주변 정황으로 보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 5. 下體埋沒佛에 나타나는 地藏·彌勒信仰의 결합

선운사 외에 지장과 미륵이 연결되는 근거는 있는가? 일찌기 70년대부터 전국의 현지 답사를 통하여 미륵신앙을 연구한 金三龍 선생은 下體埋沒佛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sup>15)</sup> 필자는 이 下體埋沒佛이 바로 지장에서 미륵신앙으로 발전하는 진표율사 모델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下體埋沒佛이란 무엇인가? 金三龍 선생의 연구에 따르면 屋外 미륵불의 상당수가 地中, 즉 흙속에 묻혀 있었다. 불상의 하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흙속에 묻혀 있는 상태의 미륵불이 下體埋沒佛이다. 그 이유는 末法救濟와 彌勒下生出現의 믿음 때문인 것으로 김삼룡은 해석하였다.<sup>16)</sup> 이미 고려시대에 중기사회의 혼란을 말법시대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말법을 구제할 當來佛로서의 彌勒下生出現에 대한 염원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미륵하생출현에 대한 염원은 조선조가 억불정책을 실시하면서 고려조보다 더욱 강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하체매몰불은 전국적 미륵불 현장조사에서 총 24구로 나타났는데, 그중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 불상이 18개이며 조선시대에 조성된 불상이 4구이다. 그런데 특기할 점은 하체매몰불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지역이 구백제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는 고려의 미륵신앙이 백제미륵사상의 이념을 이어받아 구백제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미륵불국토의 구현을 염원하였기 때문이라고 김삼룡은 해석한다.<sup>17)</sup> 간단히 말하면 옥외에 있는 미륵불상이 하체매몰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末法이라는 불교적 시대인식과, 둘째 미륵이 땅으로부터 출현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다.

15) 金三龍, 『韓國彌勒信仰의 研究』, 동화출판공사, 1984, 180쪽.

16) 위의 책, 180쪽.

17) 위의 책, 182쪽.

필자는 미륵불의 몸체가 반쯤 땅에 묻혀 있는 이유는 이러한 2가지 요인 외에도 지장신앙과 관련시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지옥은 통상 지하세계의 이미지라고 부합된다. 그러므로 지장보살은 지하세계인 땅속에 있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sup>18)</sup> 여기에다가 지장보살 다음에는 미륵불이 온다는 신앙적 틀을 대입해 보면, 하체매몰불의 신앙적 원리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즉 하체매몰불은 땅속에 있는 지장보살이 지상위에 등장할 때는 미륵불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뒤집어 보면 地下에 있을 때는 地藏菩薩이지만, 땅위에 출현할 때는 彌勒佛이 되는 것이다. 지장이 미륵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모습을 반영하는 불상이 바로 하체매몰불이 아닌가 싶다.

하체매몰불 형태의 미륵불이 성립될 수 있는 이면에는 이처럼 지장신앙이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출해 낼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진표율사의 지장.미륵신앙의 모델과 완전히 부합되는 사례가 하체매몰불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체매몰불은 半地藏.半彌勒의 모티브가 반영된 불상이라고 보아야 정확한 설명이 될 것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하체매몰불의 下部構造는 地藏이고, 上部構造는 彌勒인 셈이다. 여기서 하부구조인 지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상부구조인 미륵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장으로 상징되는 하부구조는 지하세계에 갇혀있는 민초들의 고통을 상징하고, 미륵으로 상징되는 상부구조는 그러한 고통을 지하세계가 아닌 지상의 현실세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로 해석하고 싶다. 하부구조는 또한 어두움의 세계이고 상부구조는 밝음의 세계이다. 전자가 陰이라면 후자는 陽이다. 陰地에서 陽地으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체매몰불이다.<sup>19)</sup>

- 
- 18) 『삼국유사』 「仙桃聖母隨喜佛事」條가 있다. 여기에 보면 知惠란 비구니가 어느 날 꿈에 나타난 仙桃山 神母의 말을 듣고 땅속에서 황금을 캐어 「主尊三像」을 조성한다. 그런데 이 三像 가운데에는 地藏菩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신종원 교수는 “知惠가 모신 地藏菩薩은 山神祠의 座下 즉 땅속에서 나온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地藏菩薩 본래의 뜻을 설화적으로 쉽게 풀이한 것”으로 해석한다. 辛鍾遠, 『新羅初期佛教史研究』, 민족사, 1992, 226쪽.
- 19) 한국불교사의 전개과정에서 보면 陽地족의 미륵신앙은 현실적인 사회변혁쪽으로 흘러갔고, 음지의 지장신앙은 사후세계의 영가천도쪽으로 흘러갔다. 조선조에 들어가 이러한 분화현상은 더욱 확실해 지는 것 같다. 風水圖讖으로 사회변혁의 이념을 담고 있는 『정감록』과 『격암유록』에서 가장 중요한 변혁의 주체가 ‘鄭도령’인데, 이 兩大 圖讖書에서 鄭도령은 彌勒佛과 동일시 된다. 미륵불이 조선조에 들어와 鄭도령으로 변화된 것이다. 미륵불이 가지고 있는 사

그리고 그러한 결합이 다른 지역보다도 유독 舊百濟 地域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구백제 지역은 알다시피 진표올사가 태어나서 수도하고 포교한 주요 거점이기 때문이다. 진표올사의 영향권과 겹치고 있다.<sup>20)</sup> 진표가 수도한 邊山 不思議房의 위치는 周留城내에 있다. 周留城은 백제가 망하고난 뒤 백제의 부흥군이 최후까지 나당연합군에게 저항했던 근거지로써,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이자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요새이 지역이기도 하다. 전투과정에서 몰살당한 백제부흥군의 원혼들이 몰려 있었던 이곳에서 진표는 몸을 던지는 참회수행 끝에 지장과 미륵보살의 수기를 받았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가 대중교화를 시작한 金堤 金山寺도 역시 백제 최대의 곡창지대로써 나당연합군의 수탈이 심했던 지역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의미하는 것은 진표의 성장과 수도과정에서 백제의 유민이라는 의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는 하체 매몰분의 존재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과도 분명 상관이 있다.

## 6. 한국의 地藏信仰과 『占察經』

한국지장신앙의 특징은 『占察經』(『占察善惡業報經』)에 있다. 『점찰경』은 다분히 무속적인 요소가 내포된 경전이라고 해서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대불교의 지장신앙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앞서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점찰경』의 說主는 지장보살이고, 이 『점

---

회변혁적인 상징이 조선조에서는 『정감록』과 『격암유록』에서 鄭道령으로 옷을 바뀌입는 것이다. 반면 지장신앙은 사회변혁적인 측면이 탈색된채 개인의 靈魂薦度を 담당하는 쪽으로 제한된다. 유교가 지닌 종교적 한계가 死後世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인데,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것이 지장신앙이고, 천도제이다. 조선조에 불교사찰이 전반적으로 탄압을 받았지만, 유독 사후의 영혼 薦度を 담당하는 명부전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 20) 李基白 교수는 『宋高僧傳』에 眞表가 百濟人으로 入傳되어 있는 점에 주목한다. 百濟가 망한 뒤 적어도 100년이 지난 뒤에야 입전되었다고 가정할 때 『宋高僧傳』에서 眞表를 百濟人으로 기록한 것은 眞表 스스로가 '百濟人'으로 자처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백제가 신라에게 망한뒤에도 진표는 망해버린 조국에 대한 강한 연민의 감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서에서 신라인이 아닌 백제인으로 기록되었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진표의 미륵신앙이 이러한 百濟遺民意識과도 어느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1986, 267쪽.

찰경』은 地藏三部經 가운데 하나이다. 진표율사가 미륵보살로부터 전해 받은 경전일뿐만 아니라 대중들을 교화할 때 주로 의지한 경전이기도 하다. 簡子라고 하는 나뭇가지(혹은 대나무)를 사용하여 전생의 業報를 점치는 占察法은 『점찰경』에서 유래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점찰경』은 언제 처음 들어온 것일까? 『점찰경』이 들어올 때 지장신앙도 같이 들어왔을테니까, 이 시기는 지장신앙의 전래시점과도 일치할 것이다.

『삼국유사』에 보면 占察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신라 진평왕대(579-632)의 고승 圓光法師에 의해서이다.<sup>21)</sup> 물론 원광은 占察寶를 두었다고만 했지 『占察經』이나 占察法會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는 있지 않지만, 占察寶는 占察法會를 효율적으로 갖기 위한 일종의 契조직이며 친목은 물론 경제성도 겸한 佛事法會의 상설적 기구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따라서 기록상으로 따져볼 때 『점찰경』과 점찰법을 처음 신라에 도입한 인물은 圓光法師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신라에 지장신앙이 공식적으로 전래된 시기도 이때가 아니었나 싶다. 원광이후로 점찰법회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계속 발견된다. 安興寺의 점찰법회, 道場寺의 점찰법회, 興輪寺의 점찰법회, 그리고 진표가 창건한 鉢淵寺의 점찰법회, 진표의 교법을 받은 永深이 속리산 吉詳寺에서 개최한 점찰법회가 그것이다.<sup>23)</sup> 寶川이 五臺山信仰의 틀을 짤 때 南臺에 地藏房을 두어 一萬地藏菩薩을 그려 봉안하고, 낮에는 『地藏經』과 『金剛般若』를 읽게 하고 밤에는 占察禮懺을 하도록 하였다는 시기도 景德王代(742-764)의 일로 추정되므로, 그 시기는 진표율사의 활동시기와 거의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신라의 점찰법회 나아가서는 『점찰경』의 최초 발원지를 따져 올라가면 원광법사의 점찰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신라사회에서 『점찰경』을 처음으로 유포시킨 인물은 원광법사라고 단정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원광법사는 『점찰경』을 어디에서 입수하였을까 하는 문제이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 중국의 지장신앙을 대표하는 三階敎에서는 『地藏十輪經』(『十輪

21) 『圓光西學』條에 '原宗이 불법을 일으킨 후로 津梁이 비로소 설치되었으나 堂奧에는 아직 도달할 겨를이 없었다. 이 때문에 마땅히 歸戒滅懺의 법으로 어리석고 어두운 중생들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때문에 원광은 살던 嘉栖岬에 占察寶를 두어 이것을 常規로 삼았다. 이때 시주하던 여승 하나가 占察寶에 발을 바쳤으니, 지금 東平郡의 발 1백結이 바로 이것이며, 옛날의 臺帳이 아직도 있다.' 『삼국유사』, 298쪽.

22) 金煥泰,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사상』, 『韓國佛敎思想史』, 朴吉眞博士華甲記念論叢, 圓光大出版局, 1975, 384쪽.

23) 金煥泰,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385쪽.

經)에 주로 의지하였음에 비해,<sup>24)</sup> 신라에서는 『점찰경』을 주로 애용하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장신앙이 『십륜경』을 所依經典化 하 다시피 하였다면, 한국(신라)에서는 『점찰경』을 所依經典化 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양쪽이 서로 다르다. 왜 차이를 보이는가? 한국의 고대불교에서는 지장신앙이 『십륜경』이 아닌 『점찰경』을 통하여 전파되었다는 점이 한국지장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광법사(555-638)가 『점찰경』을 입수한 시기와 경로는 入唐유학 시절 일 것이다. 원광이 중국에 유학을 간 시기는 대략 589년경이니까, 당시 지장신앙으로 중국천지를 진동시켰던 三階敎의 창시자 信行(540-594)의 말년에 해당한다. 閔泳珪 선생의 지적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원광법사는 삼계교와 신행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 장안의 민심을 쏠리게 했던 삼계교로부터 원광은 강한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sup>25)</sup> 그렇다면 삼계교에서 신봉하던 『십륜경』을 가지고 와야지, 왜 『점찰경』을 가지고 왔는가? 더군다나 『점찰경』은 중국에서도 끊임없이 僞經시비가 따라다녔던 문제의 경전이라서 국가에서 유통을 통제하던 경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sup>26)</sup> 왜 원광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는 경전을 신라에 가지고 왔을까?

『지장십륜경』의 주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 삼계교에서 지장삼부경 가운데서 『지장십륜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은 이유는, 삼부경 가운데 이 경전이 末法時代라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正法, 像法이 지나고 이른바 末法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시대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경전이 『지장십륜경』인 것이다. 통상 정법시대는 부처님 열반후 5백년동안이고, 상법시대는 1천년 동안이고, 이후로 1만년이 말법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기 3천년 설에 비추어 보면 중국에서 삼계교가 일어나던 서기 500년대 후반의 隋나라 시대는 부처님 열반후 150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계산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정법, 상법이 이미 지난뒤의 말법시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말법시대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가깝다고 느끼는 매우 다

24) 양재오, 『지장신앙의 이해』, 서강대 대학원, 25쪽 참조.

25) 閔泳珪, 『四川講壇』, 도서출판 又半, 1994, 53쪽.

26) 『삼국유사』, 『眞表傳簡』의 끝 부분에도 중국에서 이 경의 僞經여부에 대한 논란이 소개되고 있다. 一然이 살던 고려중기 불교계에서도 이 경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으나, 一然은 ‘相敎의 大乘으로 넉넉한 경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삼국유사』, 332-333쪽.

급한 불교적 역사인식이다. 말세를 닥쳐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불교적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삼계교에는 正.像.末의 불교적 시대구분을, 제1계급의 一乘과 제2계급의 三乘과 제3계급의 普法에 배대시켰다. 현재는 말법의 시대이므로 穢土의 중생에게는 제3단계의 普法佛敎가 唯一無二한 교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말법이라는 역사인식에서 보면 삼계교와 淨土敎는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방법에 있어서는 삼계교는 淨土敎와도 다르다. 삼계교에서 불 때 淨土敎를 믿는 것은 제2계급의 수행에 해당한다. 반면에 삼계교는 정토교 믿는 제2계급보다 더 상황이 열악한 근기들이 모여 있는 제3계급의 수행에 해당한다. 정토교는 정토왕생을 바라지만, 삼계교의 교도는 정토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바라는 것은 삼악도에 떨어졌을 때 지장을 일심으로 염해서 고통중에서 지장의 가피를 희망하는 것이다.<sup>27)</sup> 삼계교에 지장보살을 염하는 이유는 最善을 구해서가 아니라, 最惡을 우선 면하고 보자는 데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계교가 淨土敎보다도 더욱 민중적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철저히 밑바닥 계층으로 내려간 신흥종교가 隋나라때의 삼계교였고, 그 최하층 계층의 염원을 들어주는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이었던 것이다.<sup>28)</sup>

『지장십륜경』이 지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이다. 물론 포악한 왕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지만, 국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이 다른 경전과 구별되는 점이다. 『지장십륜경』 5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저 포악한 왕들은 악한 비구들과 한 패가 되어 삼보에 대하여 죄를 짓고서 무간 지옥에 빨리 떨어지나니라. 열 개의 기름 짜는 바퀴의 죄(기름 짤 때 바퀴에 눌러 무수한 벌레의 생명을 죽이는 죄)는 저 유곽 하나의 죄와 같고 저 유곽 열 개를 두는 되는 술집 하나의 죄와 같으니라. 술집 열 개를 두는 죄는 저 도살장 하나의 죄와 같고, 저 도살장 열 개를 두는 죄는

27) 소진홍, 「중국불교의 지장신앙」, 『肉身菩薩地藏法師』, 불교영상학회보사, 1993, 167쪽.

28) 『지장십륜경』이 설하고자 했던 주요한 대상이 하층민중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다. “살생. 도둑질. 邪行과 거짓말. 추악한 말. 이간질하는 말. 잠된 말과 탐욕. 성냄. 사편 소견 등 열가지 악업을 짓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마하살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며 귀경하고 공양하면, 그들은 일체의 번뇌가 다 소멸하여 十惡을 아주 떠나고 十善을 성취하여 모든 중생에 대해 자비스런 마음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느니라.” 『지장십륜경』, 朴敬勳 譯, 불교총서 13권, 동국역경원, 1993, 52-53쪽.

포악한 한 왕의 죄와 같으니라.<sup>29)</sup>

기름짜는 바퀴보다 더 무거운 죄업이 유곽이고, 유곽보다 더 큰 죄업이 술집이고, 술집보다 더 큰 죄업이 도살장이고, 도살장 열 개와 같은 죄업이 포악한 왕의 죄업이다. 이러한 왕은 악한 비구들과 한패가 되어 삼보에 죄를 짓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빨리 떨어진다는 것이다. 점진적인 비유법을 통해서 포악한 왕의 죄를 드라마틱하게 강조하고 있다. 문맥상으로 볼 때 포악한 왕은 불.법.승 三寶를 탄압하는 왕이다. 즉 악한 비구들과 한 패가 되어 삼보를 탄압한다는 문맥에서 읽어낼수 있는 것은, 특정 종파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거나 또는 정치적인 탄압을 가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럴 때 다른 종파와 합세하여 거기에 앞장선 왕은 살생업으로 하는 도살장 열 개의 죄업과 같은 악업을 짓는 것이 된다. 왕에 대한 일종의 경고메시지인 셈이다. 한걸음 더 들어가면 만약 국왕이 삼계교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면 이와같은 죄업을 짓는다는 간접적인 경고도 들어 있다. 국왕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지장십륜경』의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국왕을 자극하여 삼계교를 탄압하는 역효과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수도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지장십륜경』의 특징을 요약하면 3가지이다. 하나는 말법시대라고 하는 일종의 종말론 비슷한 시대인식이고, 둘째는 삼악도나 면하면 다행으로 생각할 정도의 근기들에 해당하는 최하층의 민중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는 국왕을 비롯한 정치권력에 대하여 비판적 내용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원광법사에게 『지장십륜경』의 이 3가지 사항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圖光西學」條를 분석해 보면 첫째 당시 신라사회는 한창 國運이 상승하던 시기로서, 당시의 시대를 말법시대로 진단하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징후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 둘째 원광은 최소한 중국에 유학이 가능할 정도의 계층에 속해 있었다는 점에서 최하층 출신은 아니라는 점, 셋째 원광은 국왕에게 최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정치의 자문을 받는 국사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반국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장십륜경』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서 『점찰경』은 어떤가? 『점찰경』도 물론 말법이라는 시대인식이 깔려 있는 부분은 『지장십륜경』과 동일하다.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점찰경』은 첫째 글자 그대로 占을 쳐서 宿業을 살펴보는 巫俗의인 요소가 포함된 경전이다. 巫佛習俗의인 경전인 것이다. 占이라고 하는 佛敎外的인 요소가 포함된 경전이라는 말이다. 정통불

29) 『지장십륜경』, 240-241쪽.

교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純度가 떨어지는 경전이긴 하지만, 점이 지닌 장점도 또한 있다. 그 장점이란 대중성이다. 여기서 占이라고 하는 다분히 무속적인 부분이 지장신앙을 대중들에게 전파할때는 상당한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이나 사상도 많은 대중들에게 수용되고 전파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법. 원광법사는 순도가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바로 이 대중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점찰경』의 占이 지닌 대중성을 먼저 생각한 것이다.

둘째는 『점찰경』이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길흉화복을 미리 예지하거나 또는 세속적인 명리를 추구하는데 있지 않다. 占을 쳐서 일단 본인이 어떤 전생의 업이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 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懺悔를 하도록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점찰경』의 최종 목적은 강력한 懺悔를 유발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공통적인 요소는 자기반성이다. 자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때 구원을 받을수 있는 기본이 갖춰지는 것이다. 悔改와 懺悔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참회의 심정은 강제로 또는 억지로 촉발되지 않는다. 원죄 또는 전생의 업보가 전제되어야 참회가 발생한다. 전생의 업보를 전제한다는 것은 또한 輪廻와 因果를 인정한다는 것과도 상통한다.<sup>30)</sup> 전생의 업보가 존재한다고 전제할 때, 또 한가지 문제는 자기 전생의 업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문제이다. 업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모르고는 참회가 이루어지겠는가. 알아야 참회의 마음이 쉽게 일어난다. 『점찰경』에는 그러한 전생의 업보에 대해서 일련번호를 붙여 소상하게 소개되고 있는 점이 이색적이다.<sup>31)</sup> 전생의 업보를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참회의 심정이 생긴다고 할 때, 『점찰경』은 여기에 아주 부합되는 경전입에 틀림없다. 새삼 강조하자면 참회야말로 종교적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첩경인데, 이를 촉발시키는데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점찰경』이다. 바로 이점이 『점찰경』이 지닌 대단한 장점이다. 원광법

30) 高翊奮 선생은 점찰법에 대해서 巫敎의 占卜을 불교에 攝化할 적절한 방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韓國古代佛敎思想史』, 東國大출판부, 1989, 75쪽.

31) 『점찰경』 상권에는 180가지의 선.악 과보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까지도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157은 근심되는 바를 관하여도 낮게 하지 못하는 것이요, 159는 먹는 바의 약에서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며, 160은 근심되는 바를 관하여도 목숨이 웅당 다하는 것이다....177은 몸을 버린 뒤에는 인간의 왕이 되는 것이며, 178은 몸을 버린 뒤에는 천상의 길에 나는 것이요 등등.' 『대원지장점찰선악업보경』, 석성우 역, 도서출판 土房, 1991.

사는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두가지 요소 때문에 원광법사는 중국에서 돌아올 때 『지장십륜경』 보다는 『점찰경』을 가지고 왔다고 본다.

『점찰경』이 지장신앙의 필수경전으로 신라사회에 뿌리내릴수 있었던 계기는 원광법사 때문이다. 원광이 가지고 온 『점찰경』의 신행 전통은 그 뒤로 진표율사에게 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점찰경』을 한국에 토착화 시킨 인물이 원광법사이다. 지장과 미륵을 결합시킨 인물이 진표율사라면, 『점찰경』을 신라에 토착화 시킨 인물은 원광법사인 것이다. 한국지장신앙의 특징중의 하나가 『점찰경』에 바탕한 지장신앙을 꼽을수 있는데, 이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 원광법사인 것이다.

원광이 巫佛習俗的이라고 평가되는 『점찰경』을 토착화 시킬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무속적인 요소에 대하여 거부감을 덜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과도 상통한다. 이는 그의 수확과정에서도 찾아볼수 있지 않나 싶다. 「원광서학」조에 보면 그는 중국에 유학을 가기 전, 경북지역의 三岐山에서 머무른 적이 있었다. 이때 그는 三岐山 山神의 위력을 체험하는 인상깊은 사건이 있었고, 중국에 유학을 갈수 있게된 결정적인 계기도 三岐山 山神의 충고와 도움이 작용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sup>32)</sup> 그리고 원광이 중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을때도 잊지 않고 三岐山의 神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광이 비록 불교승려이지만, 불교외적인 무속신앙 내지는 토착신앙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흔적이 보인다.<sup>33)</sup> 그렇기 때문에 『점찰경』을 쉽게 가지고 올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무불습합적인 측면은 원광법사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취향이라고 꼬집어 말할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외래종교인 불교가 신라에 처음 들어오던 무렵에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발생할수 있는 보편적인 경향이라고 짐작되기 때문이다.

원광이 『점찰경』을 신라사회에 토착화 시킬수 있었던 또 한가지 배경은 世俗五戒와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世俗五戒는 불교의 계율을 신라사회에 맞게 원광이 변용해서 수용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불교 계율의 신라토착화이다.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불교를 어떻게 하면 신라사회의 실정에 맞게 수용할것인가를 고민했던 인물이 원광이다. 이러한 불교토착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작업이 『점찰경』의 수용이라

32) 『삼국유사』, 296쪽.

33) 李基白, 앞의책, 100쪽.

고 필자는 해석하고 싶다.

## 7. 맺 음 말

한국지장신앙 초기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은 미륵신앙과 결합되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사례를 우리는 진표율사의 미륵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 지장신앙 항목이 유독 진표와 관련한 행적에서만 발견되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지장이 미륵과 결합되는 사상적 이유는 석가모니불과 미륵불의 중간시기인 無佛時代를 담당하는 보살이 지장보살이라는 교리적 근거 때문이다. 한국에서 지장과 미륵이 결합된 사례를 한국 제일의 지장도량을 일컬어지는 고창 선운사의 도솔암과, 그리고 구백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下體埋沒佛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진표율사 이래의 전통이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지장신앙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점찰경』의 유포에 있다. 이 경은 巫佛習俗의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경전이고,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던 문제의 경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장신앙에서는 『지장십륜경』 대신에 『점찰경』이 애용되었던 것이다. 이는 분명히 중국의 지장신앙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점찰경』의 유포에는 圓光法師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다. 원광이 이 경을 선호한 이유는 占察이라고 하는 巫俗의인 측면이 지니는 대중적 호응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한국 고대사회에서 불교가 이땅에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습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또 한가지 『점찰경』은 『지장십륜경』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적은 경전이었다는 점도 작용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점찰경』이 한국에 토착화 되었다.

한국지장신앙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지장신앙이 영가천도쪽으로 굳어지는 배경을 다뤄야만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했다. 다음 연구에서 다룰 것을 기약한다.

참 고 문 헌

『삼국유사』

『지장십륜경』, 동국역경원

『한국미륵신앙의 연구』, 김삼룡, 동화출판공사

『육신보살지장법사』, 불교영상

『한국고대불교사상사』, 고익진, 동국대출판국

『대원지장점찰선악업보경』, 석성우, 토방

『사천강단』, 민영규, 우반

『신라초기불교사연구』, 신종원, 민족사

『진표율사 미륵신앙의 특징』, 조용현

『지장신앙의 이해』, 서강대 석사논문